

**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苛斂誅求** 가혹히 세금을 거두고 재물을 빼앗다

苛: 가혹할 가 斂: 거둘 렴 誅: 벌 주 求: 구할 구

백성을 괴롭히는 포악한 정치를 이름 - 《예기(禮記)》

孔子過泰山側，有婦人哭於墓者而哀。夫子式而聽之，使子路問之，曰：“子之哭也，壹似重有憂者。”而曰：“然，昔者，吾舅死於虎，吾夫又死焉，今吾子又死焉。”夫子曰：“何爲不去也？”曰：“無苛政。”夫子曰：“小子識之，苛政猛於虎也。”《禮記》

공자와태산측, 유부인곡어묘자이애. 부자식이청지, 사자로문지, 왈: “자지곡야, 일사중유우자.” 이왈: “연, 석자, 오구사어호, 오부우사언, 금오자우사언.” 부자왈: “하위불거야?” 왈: “무가정.” 부자왈: “소자지지, 가정맹어호야.” 《예기》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태산 기슭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한 여인이 세 개의 무덤 앞에서 목놓아 울고 있었다. 수레 위에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그 까닭을 알아보라고 했다. 자로가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요?”

여인이 더욱 흐느끼며 답했다. “옛적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고 제 남편도 호랑이에게 당했는데, 이제 아들이 또 그것에게 죽었습니다.” 자로가 의아해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이유를 설명했다. “이곳은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거나 부역을 강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로에게 여인의 말을 전해 들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라.”

《예기(禮記)》에 나오는 일화로, 가렴주구(苛斂誅求)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뜻한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도 가렴주구와 뜻이 같다. 민생도탄(民生塗炭) 도탄지고(塗炭之苦)도 가혹한 정치를 이르는 말이다.

**刻舟求劍** : 뱃(舟)전에 새겨(刻) 놓은 물속으로 들어가 그 칼(劍)을 찾으려(求)고 함. 배에 새기어 칼을 찾음. 시대의 변천을 모르고 융통성이 없이 어리석음.

· 출전 : 여씨춘추 신대람 찰금편(呂氏春秋 慎大覽 察今篇)

· 줄거리 : 초나라의 한 젊은이가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뱃전에 표시를 해 놓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 표시를 해놓은 물속으로 들어가 칼을 구하려 했다는 이야기.

楚人有涉江者 其劍自舟中墜於水 遽契其舟 曰 是吾劍之所從墜 舟止從其

所契者 入水求之 舟已行矣 而劍不行 求劍若此 不亦惑乎 以故法爲其國

與此同 時已徙矣 而法不徙 以此爲治 豈不難哉 『呂氏春秋』

초인유섭강자, 기검자주중추어수, 거계기주, 왈: "시, 오검지소종추." 주지, 종기소계자, 입수구지, 주이행의, 이검불행, 구검약차, 불역혹호. 이고법위기국, 여차동. 시기사의, 이법불사, 이차위치, 기불난재?-

초나라 사람으로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칼이 배 한가운데로부터 물로 떨어져 버리자, 갑자기 그 배에 새기면서 말하였다. “여기가 내 칼이 따라서 떨어진 곳이다.” 배가 멈추자, 그 새긴 곳으로부터 물속에 들어가 칼을 찾았다. 배는 이미 흘러갔을 것이나 칼은 흘러가지 못하였으니 칼을 찾는 것이 이와 같다면 또한 미혹하지 않겠는가? 옛날의 법으로써 그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와 더불어 같을 것이다. 시대는 이미 변하였으나 법을 고치지 않고 이로써 다스림을 삼는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 管鮑之交 管仲 과 鮑叔의 사귄(교우)

管仲夷吾者，潁上人也。少時常與鮑叔牙游，鮑叔知其賢。管仲貧困，常欺鮑叔，鮑叔終善遇之，不以爲言。已而鮑叔事齊公子小白，管仲事公子糾。及小白立爲桓公，公子糾死，管仲囚焉。鮑叔遂進管仲。管仲既用，任政於齊，齊桓公以霸，九合諸侯，一匡天下，管仲之謀也。

管仲曰：“吾始困時，嘗與鮑叔賈，分財利多自與，鮑叔不以我爲貪，知我貧也。吾嘗爲鮑叔謀事而更窮困，鮑叔不以我爲愚，知時有利不利也。吾嘗三仕三見逐於君，鮑叔不以我爲不肖，知我不遭時也。吾嘗三戰三走，鮑叔不以我爲怯，知我有老母也，公子糾敗，召忽死之，吾幽囚受辱，鮑叔不以我爲無恥，知我不羞小節而恥功名不顯于天下也。生我者父母，知我者鮑子也。” <管晏列傳>

관중(管仲) 이오(夷吾)는 영수(潁水) 유역의 사람이다. 젊어서 포숙아(鮑叔牙)와 교제하였으며, 포숙은 그의 현명함을 알아주었다. 관중은 가난해서 항상 포숙을 속였으나 포숙은 끝까지 그를 잘 대해주고 속인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 후 포숙은 제나라 공자 소백(小白)을 섬기고 관중은 공자 규(糾)를 섬기게 되었다.

소백이 환공(桓公)으로 즉위하면서 싸움에서 진 공자 규가 죽자 관중은 잡히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 포숙은 곧 관중을 천거하였다. 관중은 등용되어 제나라에서 국정을 맡게 되었다.

제 환공은 패자가 되어 여러 차례 제후들과 회맹하여 혼란스러운 천하를 바로잡았으니 모두 관중의 지모 덕분이었다.

"내가 어릴 적 곤궁할 적에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할 때, 이익의 분배를 내가 포숙보다 더 많이 가져갔는데 포숙은 나를 탐욕스럽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주었기 때문이었고,

벼슬 길에 올라 많은 실수로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했지만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 하지 않고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알아주었다.

또한 내가 포숙아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을 때, 내가 세 번이나 도망을 치자 사람들은 나를 비겁하다고 질책했지만 포숙아는 내가 집에 연로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알아 주었고,

또 나와 포숙아가 제나라의 두 공자인 규(糾)와 소백(小白)의 사부가 되었다가 내란에서 공자 규를 모시던 내가 공자 소백에게 패하여 참수형의 위기에서 포숙아의 설득으로 목숨을 구하고 오히려 재상의 자리까지 나에게 물려주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알아주었다.

결국 나를 나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이는 포숙아이다."

## 兔死狗烹 [토끼 토/죽을 사/개 구/삶을 팡]

☞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가 삶아진다. 필요가 없게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게 된다.

[원] 狡兔死 走狗烹(교토사 주구팡)

[출전] 『史記』, 淮陰侯傳

[내용] : 한신(韓信)은 漢나라가 천하통일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워 그 공로로 초왕(楚王)이 되었는데 항우의 신하로 있을 때 사권 친구 종리매(鍾離昧)가 그에게 의탁하고 있었다.

유방은 종리매가 한신 밑에서 숨어지낸다는 것을 알고 체포명령(逮捕命令)을 내렸으나 한신은 차마 어찌할 수가 없었다. 유방이 화가 나 한신을 체포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종리매는 자결하였다.

한신은 죽은 그의 목을 바쳤으나 체포당하자「한신이 말하기를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도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달리던 개가 삶아지고 높이 나는 새가 다하니 좋은 활이 사장된다. 적국이 파괴되니 지혜로운 신하가 죽고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나는 진실로 삶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원문] 韓信曰 果若人言하다. 狡兔死하니 走狗烹이요 高鳥盡하니 良弓藏이라. 敵國破하니 謀臣亡이라하고 天下가 已定하니 我固當烹이라.

\*\* 狡(교활할 교) 筌(통발 전) 藏(감출 장) 謀(꾀할 모) 當(마땅 당)

**多多益善**: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출처: 《史記(사기)·淮陰侯列傳(회음후열전)》

〈원문〉

上常從容與信言諸將能不，各有差。上問曰：“如我能將幾何？”信曰：“陛下不過能將十萬。”上曰：“於君何如？”曰：“臣多多而益善耳。”上笑曰：“多多益善，何為為我禽？”信曰：“陛下不能將兵，而善將將，此乃言之所以為陛下禽也。且陛下所謂天授，非人力也。”

황상은 평소에 한신과 함께 여러 장군들의 우열을 토론하여, 각자에게 장단점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황상이 한신에게 물었다. “나의 재능으로는 군사 몇 명을 통솔할 수 있는가?” 한신이 말했다. “폐하는 단지 군사 10만을 통솔하는데 불과합니다.” 황상이 말했다. “그대는 어떤가?” 대답하기를,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황상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어째서 아직 나의 포로가 되었는가?” 한신이 말했다. “폐하는 군대는 통솔하지 못하지만, 장수들을 거느리는 것은 통달했으므로, 이것이 곧 말하자면 제가 폐하의 포로가된 까닭입니다. 또 폐하의 능력은 선천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노력한 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 結草報恩 [맺을 결/풀 초/값을 보/은혜 은] 𦵏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 ① 죽어 혼이 되더라도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 ② 무슨 짓을 하여서든지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겠다.

[유] 刻骨難忘(각골난망)/ 難忘之恩(난망지은)/ 銘心不忘(명심불망)/ 白骨難忘(백골난망)

[속담] 머리털 베어 신을 삼는다. / 털을 뽑아 신을 삼겠다. / 개 새끼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친다.

[출전] 『左傳』

[원문]

秋，七月，秦桓公伐晉，次于輔氏，壬午，晉侯治兵于稷，以略狄土，立黎侯而還，及雒，魏顆敗秦師于輔氏，獲杜回，秦之力人也，初，魏武子有嬖妾，無子，武子疾，命顆曰，必嫁是，疾病則曰，必以為殉，及卒，顆嫁之，曰，疾病則亂，吾從其治也，及輔氏之役，顆見老人，結草以亢杜回，杜回躡而顛 故獲之，夜夢之曰，余，而所嫁婦人之父也，爾用先人之治命，余是以報。

[해석] 기원전 594년 가을 음력 7월에 진(秦)환공이 진(晉)의 정벌을 위해 출병하여 진(晉)의 보씨에서 주둔하였다. 임오일에 진경공(晉景公)이 직에 출병, 적(狄)을 점령하여, 여후를 세우고 돌아왔다. 낙에 이르렀을 때, 위과가 보씨에서 진(秦)의 군대를 격파하고, 진(秦)의 대역사(大力士)인 두회를 포로로 잡았다.

당초에 위무자에게 한 애첩이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다. 위무자가 병에 걸리자 아들 위과에게 분부하여 말했다. “(내가 죽은 이후에) 그녀를 반드시 시집보내야 한다.” 병이 위급해지자 다시 말했다. “반드시 그녀를 순장해야 한다.” 위무자가 죽자, 위과는 그녀를 시집보내며 말했다. “중병으로 정신이 혼란하여, 그분이 정신이 맑을 때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보씨에서 전투를 할 때, 위과는 풀을 엮어서 두회를 저지하는 한 노인을 보았다. 두회는 땅에 넘어져 포로로 잡혔다. 밤에 노인이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그대가 시집보낸 그녀의 부친인데, 그대가 그대의 선친께서 정신이 맑을 때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보답을 하는 것이오.” 《춘추좌씨전》

## 守株待兔

宋人 有耕田者 田中有株 兔走觸株 折頸而死. 因釋其耒而守株 冀復得兔 兔不可復得 而身爲宋國笑 <韓非子>

송(宋)나라 사람 중에 밭을 가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 가운데에 나무를 베어내고 밑둥만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토끼 한 마리가 숲에서 나왔다가 농부를 보고 도망치다 그루터기에 부딪쳐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토끼를 얻은 농부는 다음날부터 밭에 나와서는 밭을 갈 생각은 없이 쟁기며 농기구를 팽개치고 또 다른 토끼가 그루터기에 부딪치기를 바라면서 그루터기만 지키며 보냈지만 토끼는 다시 얻을 수 없었고 자신은 송나라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 捲土重來

땅을 말아 올릴 듯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분기하여 세력을 되찾는다는 말이다.

[出典]

杜牧의 詩 ‘題烏江亭(제오강정)’

勝敗兵家不可期

包羞忍恥是男兒

江東子弟多豪傑

捲土重來未可知

오강(烏江 : 安徽省 內 所在)은 초패왕(楚霸王) 항우(項羽 : B.C 232-202)가 스스로 목을 쳐서 자결한 곳이다.

## 四面楚歌

출처: 《史記(사기)·項羽本紀(항우본기)》

뜻: 사방이 모두 초나라의 노랫소리이다.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여 고립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다.

項王軍壁垓下，兵少食盡，漢軍及諸侯兵圍之數重。夜聞漢軍四面皆楚歌，項王乃大驚曰：“漢皆已得楚乎？是何楚人之多也！”項王則夜起，飲帳中。

有美人名虞，常幸從；駿馬名騅，常騎之。

於是項王乃悲歌慨，自為詩曰：

“力拔山兮氣蓋世，時不利兮騅不逝。騅不逝兮可奈何，虞兮虞兮 奈若何！”

歌數闋，美人和之。項王泣數行下，左右皆泣，莫能仰視。

항우의 군대가 해하에서 주둔하는데, 사병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식량은 바닥났으며, 유방의 한군과 한신, 팽월의 제후 군대가 수 겹으로 포위하여 왔다. 야간에 한군이 사방에서 모두 초 지방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항우가 대경실색하여 말했다. “한군이 초 지방을 모두 점령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쩌서 한군 중에 초나라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항우는 야간임에도 일어나 군영의 막사 안에서 술을 마셨다.

그에게는 이름이 우라고 하는 미인이 있었는데, 총애를 받아 항상 신변을 지켰고, 추라고 하는 준마가 있는데 늘 타고 다녔다. 그리하여 항우는 격앙에 복받쳐 비가의 시를 읊조렸다. “힘으로는 산을 뽑고 호기로는 일세를 압도하나, 천시가 불리하니 준마 추를 타고 달릴 수가 없구나. 준마 추가 달릴 수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우희야 우희야 내가 너를 어찌해야 하는가!” 그가 연이어 노래를 부르니, 우희 또한 노래를 따라 불렀다. 항우가 만면에 눈물을 흘리자, 주변의 시종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니, 누구도 항우를 쳐다보지 못했다.

〈주해〉

壁(벽): 주둔하다

垓下(해하): 安徽省(안휘성)에 있는 지명

諸侯(제후): 淮陰侯(회음후) 한신, 建成侯(건성후) 팽월 등을 말함

奈若何(내약하): 奈는 고대에 奈何와 같음. 어찌. 어떻게. 若은 너

闋(결): 歌曲(가곡) 또는 詞(사)의 首(수)를 세는 단위



## 指鹿爲馬

1) 음훈 : 指 손가락.가리킬 지, 鹿 사슴 록, 爲 할.위할 위, 馬 말 마

2) 관련사항 : [출전]《史記》〈秦始皇本紀〉

3) 의미 : 사슴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한다. ① 잇사람을 농락하여 마음대로 휘두름의 비유.  
② 위압적으로 남에게 잘못을 밀어붙여 끝까지 속이려 함의 비유.

4) 유래 : 진(秦)나라 시황제가 죽자 측근 환관인 조고(趙高: ?~B.C. 208)는 거짓 조서(詔書)를 꾸며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호해(胡亥)를 세워 2세 황제로 삼았다. 현명한 부소보다 용렬한 호해가 다루기 쉬웠기 때문이다. 호해는 '천하의 모든 쾌락 을 마음껏 즐기며 살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어리석었다고 한다. 어쨌든 조고는 이 어리석은 호해를 교묘히 조종하여 경쟁자인 승상 이사(李斯)를 비롯, 그밖에 많은 구신(舊臣)들을 죽이고 승상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그러자 역심이 생긴 조고는 중신들 가운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폐하, 말[馬]을 바치오니 거두어 주시오소서." "승상은 농담도 잘 하시오.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다니[指鹿爲馬]'……. 어떻소? 그대들 눈에도 말로 보이오?" 말을 마치자 호해는 웃으며 좌우의 신하들을 둘러보았다. 잠자코 있는 사람보다 '그렇다'고 긍정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고는 부정한 사람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죄를 씌워 죽여 버렸다. 그 후 궁중에는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천하는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각처에서 진나라 타도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중 항우와 유방의 군사가 도읍 함양(咸陽)을 향해 진격해 오자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부소의 아들 자영(子嬰)을 세워 3세 황제로 삼았다(B.C. 207). 그러나 이번에는 조고 자신이 자영에게 주살 당하고 말았다.

5) 원문 : 趙高欲爲亂 恐群臣不聽 乃先設驗 持鹿獻於二世曰 馬也 二世笑曰 丞相誤邪 謂鹿爲馬. 問左右 左右或默 或言馬 以阿順趙高 或言鹿者 高因陰中諸言鹿者以法 後群臣皆 畏高.

## 杞憂(기우)

출처: 《列子(열자)·天瑞(천서)》

뜻: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내려앉을까 봐 걱정하다. 쓸데없는 걱정.

杞國有人，憂天地崩墜，身亡所寄，廢寢食者。

又有憂彼之所憂者，因往曉之，曰：“天，積氣耳，亡處亡氣。

若屈伸呼吸，終日在天中行止，奈何憂崩墜乎？”

其人曰：“天果積氣，日月星宿不當墜邪？”

曉之者曰：“日月星宿，亦積氣中之有光耀者，只使墜，亦不能有所中傷。”

其人曰：“奈地壞何？”

曉者曰：“地積塊耳，充塞四虛，亡處亡塊。若躇步跼蹐，終日在地上行止，奈何憂其壞？”

其人舍然大喜，曉之者亦舍然大喜。

### 〈원문 해석〉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을 걱정, 숨을 곳이 없다고 여겨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이뤘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기나라 사람의 걱정을 걱정하여 그에게 가서 일깨워 말했다. “하늘은 기체가 축적된 것에 불과하니 그곳은 공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당신의 일거일동과 호흡은 종일 공중에서 활동하는데,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합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하늘이 기체이면 해와 달과 별은 당연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깨우쳐준 사람이 말했다. “해와 달과 별은 공기 중에서 발광하는 것으로, 곧 떨어져도 역시 상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만약에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우쳐준 사람이 말했다. “땅은 흙덩이가 퇴적된 것에 불과하며 사방이 꽉 채워져 있어, 어느 곳도 흙덩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걸어가면서 밟으며, 종일 땅 위에서 활동한다 해도 어떻게 땅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그 기나라 사람이 비로소 마음을 놓고 매우 기뻐하였으며, 그를 깨우쳐 준 사람도 마음 놓고 매우 기뻐하였다.

杞憂(기우):杞(기)는 기원전 11세기에 주나라에 의해 분봉된 제후국. 기원전 445년 楚(초)에 의해 멸망됨. 憂(우): 걱정하다

屈伸(굴신): 굽히고 펴는 것. 신체의 모든 동작을 말함

星宿(성수): 별자리. 나열된 별

四虛(사허): 사방/躊:밟다(저) 蹐:밟을(차)

舍然(사연): 마음을 놓은 모양

## 朝三暮四(조삼모사)

출처: 《莊子(장자)·齊物論(제물론)》

뜻: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우롱하며 남을 속이다. 이랬다저랬다 변덕스럽게 굴다.

宋有狙公者，愛狙，養之成群，能解狙之意；狙亦得公之心。

損其家口，充狙之欲。俄而匱焉，將限其食。

恐衆狙之不馴于己也，先誑之曰：“與若茅，朝三而暮四，足乎？”

衆狙皆起而怒。

俄而曰：“與若茅，朝四而暮三，足乎？”衆狙皆伏而喜。

### 〈원문 해석〉

송나라에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원숭이를 매우 좋아하여, 많은 원숭이를 키우면서 원숭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원숭이들 또한 그의 관심을 얻었다. 그의 가족의 식량은 감소하였지만, 원숭이들의 요구는 충족시켰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의 식량이 부족하게 되어, 그는 원숭이들의 먹이를 제한하려 하였다. 그러나 원숭이들이 자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우선 원숭이들을 기만하여 말했다. “너희들에게 상수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주면 되겠는가?” 모든 원숭이들이 들고일어나며 아주 분노하였다. 잠시 후에 그가 다시 말했다. “너희들에게 상수리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주면 만족하겠는가?” 모든 원숭이들이 땅에 엎드리며 기뻐하였다.

### 〈주해〉

朝三暮四(조삼모사): 朝는 아침. 暮는 저녁.

狙(저): 猿(원). 猴(후). 원숭이

俄(아): 잠깐. 잠시/茅(서)도토리. 상수리

匱(궤): 함. 삼태기. 다하다(盡)

恐(공): 아마. 대체로

## 畫蛇添足(화사첨족)

출처: 《戰國策(전국책)·齊策二(제책이)》

뜻: 뱀을 그리며 발을 더하다. 쓸데없는 짓을 하다. 사족(蛇足).

楚有祠者，賜其舍人卮酒。舍人相謂曰：‘數人飲之不足，一人飲之有餘。請畫地為蛇，先成者飲酒。’一人蛇先成，引酒且飲之，乃左手持卮，右手畫蛇，曰：‘吾能為之足。’未成，一人之蛇成，奪其卮曰：‘蛇固無足，子安能為之足。’遂飲其酒。為蛇足者，終亡其酒。

### 〈원문 해석〉

초나라에 어떤 사람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이후에 술 한 병을 식객들에게 주었습니다. 식객들은 상의하여 말하기를, ‘여럿이 마시면 부족하고, 한사람이 마시면 남으니, 땅에 뱀을 그리기로 하여 먼저 그린 사람이 술을 마시기로 합시다.’ 한사람이 뱀을 가장 먼저 그린 후에, 술병을 당겨와 마시려고 왼손에는 술병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뱀을 그리며 말하기를, ‘나는 발도 그릴 수 있다.’ 아직 완성이 안 되었는데, 다른 한사람이 뱀 그리기를 완성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술병을 뺏으며 말하기를, ‘뱀은 본래 발이 없는데 그대는 어떻게 발을 더하겠다는 것인가?’하며 곧 그 술을 마셨습니다. 발을 그리겠다고 한 사람은 결국 술병을 빼앗긴 것입니다.

### 〈주해〉

祠(사): 제사

舍人(사인): 옛날 귀족의 식객

卮(치): 술잔

## 五十步百步(오십보백보)

출처:《孟子(맹자)·梁惠王上(양혜왕상)》

뜻: 오십보백보. 전쟁 시, 오십 보 도망간 사람이 백 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다.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원문〉

孟子對曰：“王好戰，請以戰喻。填然鼓之，兵刃既接，棄甲曳兵(2)而走，或(3)百步而後止，或五十步而後止。以五十步笑百步，則何如？”  
曰：“不可。直(4)不如百步耳，是亦走也。”曰：“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于鄰國也。”

〈원문 해석〉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니, 청컨대 전쟁으로 비유하고자 합니다. 둥둥 전투의 북소리가 울리고, 쌍방이 이미 교전을 하여 갑옷을 벗어던지고 병기를 질질 끌면서 달아나는데, 어떤 이는 백보를 달아난 후에 멈추고, 어떤 이는 오십 보를 달아난 후에 멈추었습니다. 오십 보 달아난 이가 백보 달아난 이를 비웃으면, 어떻겠습니까?” 양혜왕이 말했다. “안 되지요. 다만 백보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지, 역시 달아난 것입니다.”

〈주해〉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오십보소백보)와 같은 말.

(1)加(가): 더욱.

(2)兵(병): 병기.

(3)或(혹): 어떤 사람.

(4)直(직): 다만. 단지.

## 髀肉之嘆

1) 음훈 : 비육지탄

2) 관련사항 : [출전] 《三國志》〈蜀志〉

3) 의미 : 성공하지 못하고 한갓 세월만 보냄에 대한 탄식.

4) 유래 : 유비(劉備)는 198년에 조조(曹操)와 협력하여, 한 마리 이리와 같은 용장(勇壯) 여 포(呂布)를 하비(下擢)에서 격파한 다음, 한(漢)의 임시 수도 허창(許昌)으로 올라 가 조조의 주선(周旋)으로 헌제(獻帝)에게 배알(拜謁)하고 좌장군에 임명되었지만, 그대로 조조의 휘하에 있는 것을 싫어하여 허창을 탈출하여 각지로 전전한 끝에 황족(皇族)의 일족인 형주 (荊州)의 유표(劉表)에게 의지하여 조그만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유표에게 초대되어 형주성(荊州城)에 갔을 때, 변소에 서 볼일을 보고 일어서던 유비는 문득 자신의 넓적다리에 살이 많이 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오자 유표가 유비의 눈물 흔적을 보고는 그 까닭을 묻자, 유비의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지금까지 항상 말을 타고 전장을 돌아다녀서, 넓적다리에 살이 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말을 타지 않고 너무 빈둥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살이 들러붙었습니다. 세월이 가는 것은 빨라 늙음이 이르는데도, 아직 공업(功業)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슬플 뿐입니다."

5) 원문 : 備住荊州數年 嘗於表坐起至厠 見髀肉生 慨然流涕 還坐 表怪問備 備曰 吾常身不離鞍 髀肉皆消 今不復騎 髀裏肉生 日月若馳 老將至矣 而功業不建 是以悲耳.

『주(註)』

匕 치(馳) : 달리다.

## 膠柱鼓瑟

□《사기》〈염파인상여열전(廉頗藺相如列傳)〉

膠 : 아교 교 柱 : 기둥 주 鼓 : 두드릴 고 瑟 : 거문고 슬

□풀이: 거문고의 기러기발(기둥)을 아교로 붙여놓고 거문고를 타다.

규칙에 얽매어 융통성이 없는 딱 막힌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기러기발(거문고의 기둥)을 아교풀로 고착시켜 버리면 한 가지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

□구조: 膠 | 柱 鼓 | 瑟

•膠 | 柱(교주): 기둥(거문고의 기러기발)을 아교로 붙이고

-膠(아교 교) 아교(阿膠)풀로 짐승의 가죽, 힘줄, 뼈 따위를 진하게 고아서 굳힌 끈끈한 것이다. ‘갓풀’(동사술어)

-柱(기둥 주) 거문고의 기러기발이다(목적어)

•鼓 | 瑟(고슬): 거문고를 타다

-鼓(두드릴 고) 악기를 타다, 연주하다(동사술어)

-瑟(거문고 슬) 큰 거문고로 현악기(목적어)

**斷末魔**: 숨이 끊어질 때 고통스러워서 지르는 비명.

末魔:산스크리트어로 急所/死穴의 뜻

유래

傷害人心者 臨終受斷末魔苦 <顯宗論>

## 毛遂自薦 vs 囊中之錐

조왕이 평원군으로 하여금 초나라를 구원코자 했는데 평원군이 약속하였다. 평원군 문하 식객으로 문무를 갖춘자가 20인 이었는데 그들을 갖추었는데 19인밖에 없어서 나머지 한명을 얻을수 없었다. 그때 모수가 평원군에게 스스로를 추천했는데 평원군이 말하길 “대저 어진 선비가 세상에 처할 때 비유하자면 송곳이 주머니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자연히 그 날카로운 끝이 고추서 보이게 마련인데 지금 선생이 나의 문하에 3년간 있었지만 제가 선생의 명성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이는 선생이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일 것이지요” 모수왈“제가 오늘에야 주머니속에 처하길 원합니다. 만이 제가 좀더 일찍 주머니속에 있었다라면 그 날카로운 끝이 빠져나왔을 뿐만아니라 그끝이 보이기 까지 했을 겁니다.” 평원군이 이에 그를 갖추게 하였고 나머지 19인은 눈으로 비웃었다.

趙王，使平原君，求救於楚，平原君，約，其門下食客文武備具者二十人，與之俱，得十九人，餘無可取者。

毛遂自薦於平原君，平原君曰：“夫賢士之處世也，譬若錐之處囊中，其末立見。今先生處勝之門下三年於此矣，勝未有所聞，是先生無所有也。”

毛遂曰：“臣乃今日，請處囊中爾。使遂蚤得處囊中，乃穎脫而出，非特其末見而已。”平原君乃與之俱，十九人相與目笑之。

毛遂自薦：모수가 자신을 추천함/자기가 스스로를 추천함.

囊中之錐：재능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 推 敲

1. 퇴고(推敲)란, 글을 다시 다듬고 고치는 행위로, 글을 여러 번 교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이기도 하다.

2. 유래[편집]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 779~843)가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문득 좋은 시상(詩想)이 떠올라서 즉시 정리해 보았다. 제목은 '이응(李凝)의 유거(幽居)에 제(題)함'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초(草)를 잡았다.

閑 居 少 隣 竝 (한거소린병) 이웃이 드물어 한적한 집

草 徑 入 荒 園 (초경입항원) 풀이 자란 좁은 길은 거친 뜰로 이어져 있다.

鳥 宿 池 邊 樹 (조숙지변수) 새는 못 속의 나무에 깃들고

僧 敲 月 下 門 (승고월하문) 스님이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

그런데 초를 잡고 나니 결구(結句)를 민다(推)로 해야 할지, 두드리다(敲)로 해야 할지를 이리저리 궁리하며 가다가 자신을 향해 오는 고관의 행차와 부딪혔다. 그 고관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이며 부현지사(副縣知事)인 한유(韓愈, 768~824)였다. 가도는 먼저 길을 피하지 못한 까닭을 말하고 사과했다. 역시 대문장가인 한유는 뜻밖에 만난 시인의 말을 듣고 꾸짖기를 잊어버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내 생각엔 '두드리다.'가 좋을 듯하네." 이후 이들은 둘도 없는 시우(詩友)가 되었다고 한다.